

“점자 짚어가며 힘들게 공부...이젠 빛나는 미래 꿈꿔요”

2024 대입 수능 치르는 광주 시각 장애인 수험생들

“눈은 흐리지만 실력은 있습니다.”
 광주지역 특수학교인 세광학교에 다니는 김소을(19)양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광주지역 장애인 수험생은 총 26명이다.
 장애별로 보면 중증 시각 장애인 1명, 경중시각 장애인 9명, 뇌병변 장애인 8명, 중증청각 장애인 6명, 지체장애인 2명 등이다.
 김양은 다른 수험생보다 더 험난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점자 시험지여서 일반적인 시험 시간보다 매 교시 1.7배 시간이 더 부여된다.
 시각장애 수험생들은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무려 136분 동안 치른다. 비장애인 학생(80분)에 비

해 시험 시간이 길다.
 결국, 장애학생이 모든 시험을 치르고 수험장을 나서는 시간은 밤 9시다. ‘전쟁같은 시험’이다.
 장애 1급인 김양은 태어날 때부터 잔존 시력으로 살아왔다. 아주 가까운 사물만 흐릿하게 볼 수 있는 상태다.
 영어는 점자 영어 표시를 따로 구분하고 약자도 별개로 외워야 해서 시각장애인에게는 두배로 어렵다는 게 김양의 말이다. 또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점자책은 무겁고 매번 손으로 옮기고, 귀로 들어가며 공부해야 하는 탓에 비장애인보다 학습시간도 오래 걸린다.
 하지만 김양은 비장애인들보다 시간이 2배 걸리는 만큼, 2배 더 열심히 했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 1급 세광학교 김소을양

비장애인보다 노력 두배 쏟아
 대학생활은 주도적 삶의 기회
 장애학생 보듬는 교사 되고파

세광학교를 다니며 새로운 꿈을 갖게 된 김양은 전남대 특수교육과에 입학해 최종적으로 장애학생들을 사장으로 보듬는 선생님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김양에게 이번 수능이 더욱 특별한 이유다.
 김양은 매일 밤 8시까지 학교에 남아 야간자율학습을 하며 세광학교 내 시각장애 친구들과 정보 단 말기로 공부 과일을 공유했다. 어려운 과목은 서로 문답을 주고받기도 하고, 힘이 들 때는 서로를 의지

한쪽 눈에 의지하는 양동수군

수능에 다 털어놓겠다는 각오
 남에게 의지않는 강한 사람 돼
 주변 사람 지켜주는 검사 될 것

하기도 했다.
 김양은 “대학에 가기 앞서 장애를 존중해 주고 배려해 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게 걱정도 있지만,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한쪽 시력을 잃은 양동수(19)군도 역시 이번 수능에 모든 걸 털어놓고 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시각 장애 6급인 양군은 “시각장애 특성상 책을 한쪽 눈으로만 봐야해 그간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장애인에게 이상해 보일 만큼 특이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여가며 책을 읽어야 했다. 학습자세 때문에 몸 구석구석이 쭈시고 아프기도 했다는 것이 양군의 이야기다.
 하지만 양군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사정각 공부를 꾸준히 했다. ‘검사’라는 꿈이 있기 때문이다.
 양군은 “더 이상 남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와 가족, 주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수능을 위해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열심히 공부했다”며 “모든 힘을 쏟아낸다는 마음으로 이번 시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통합돌봄 비전 선포 15일 오후 광주시 북구 연제동 북구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3 광주 북구 통합돌봄 비전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5·18기념재단 '5·18 왜곡' 전광훈·주옥순 고발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편향하는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주옥순 대한민국의용마부대 대표를 고발했다.
 5·18기념재단은 15일 전 목사와 주씨에 대한 고발장을 광주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고발장에서 “이들이 지난 4월 27일 광주시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광주·전남·전북 순회 자유마마를 국민대회’ 집회를 열고 5·18왜곡·편향 발언을 해 5·18왜곡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목사가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일으킨 합작품이다’, ‘폭동은 전문적 선동꾼에 의하여 발생했지 광주 시민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폭도들이 전남의 대 옥상에서 폭군 헬리콥터를 향해 발포했다’, ‘5·18 당시 총을 쏜 사람은 광주 시내를 장악하고 있던 고정간첩들이다’는 등 주장을 했다”고 적시

했다.
 또 “주씨는 ‘가짜 유공자들이다 돈을 받고 배가 불러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내려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시민운동가로 변질돼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재단은 지난 5월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광주북부경찰청에 접수했다. 서울중앙경찰서도 이 관련 이후 수사에 진전이 없자 고발장을 재접수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전씨와 주씨의 발언은 그 자체로 증빙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급력을 고려할 때 해악이 매우 심대하다”며 “이들의 구체적 발언의 내용, 그 발언의 허위성을 구체적으로 고발장에 제시한만큼 수사기관이 속도를 내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를 진행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전남 고액 체납자 506명 공개

‘1천만원 이상’ 개인·법인...189억 연말까지 특별 징수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시군 누리집,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체납자로, 총 189억원 규모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

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광주 공개 대상자는 개인 131명 60억, 법인 76명 26억원 등 총 207명 86억원이다. 전남 공개 대상자는 개인 164명 49억원, 법인 135개 54억원 등 299명 103억원이다.
 광주의 법인 최고 체납업체는 광주 광산구의 제조업체로 부동산 취득세 2억100만원을 미납했다. 개인 최고 체납은 예술·스포츠 업체를 폐업한 광산구 거주자로 12억3000만원의 종합소득세 지방세분을 체납했다.
 전남 법인 최고 체납은 광양시 소재 토지구획정

리조합이다. 재산세 2억3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은 광양시 거주자로 취득세 등 2억여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출금금지·관세징 수입품 압류·신용불량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하는 등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또 이날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1명(광주 23명 18억원·전남 8명 1억 6000만원)도 공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무등산 일부 탐방로 '산불 예방' 통제

인왕봉 전망대 12월 15일까지 지리산·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건조한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광주·전남의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가 통제된다.
 15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달 15일 까지 무등산국립공원 내 3개 구간에 대해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선주암갈림길~서인봉갈림길(0.8km), 광일목장입구~신선대갈림길(3.1km), 인왕봉전망대~군부대입구(1.17km) 등이다.
 이 기간 통제 구간을 출입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은 노고단고개~삼도

봉, 만복대-정령치, 피아골대피소-피아골삼거리, 만복대-성삼재, 연기암-용혈암, 당동-당동고개, 노루목-반야봉삼거리, 상위-묘봉치 등 7개 구간이 출입이 금지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도 완도 소안도비자-북암구간과 황간도의 황간-사자바위 구간에 대해 출입이 통제된다.
 영암 월출산국립공원에서는 무위사-미양재 구간 한곳이 통제구간으로 지정됐다.
 김중영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산물에 취약한 탐방로에 산불 발생시 빠른 발견과 초동 조치가 어려워 출입을 금지한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시에는 인화물질 반입, 공원 내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 금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대민 기자 kdi@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이호동 김박소영 그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